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골드만삭스를 초청해 '미국 경제 전망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 이사 Lisa Cook, 최근 금리 인하 지지 표명

[미국 금융]

- CNBC: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향후 1~2년 동안 주식 시장 하락 예상”
- Bloomberg: 주가 상승세 멈춤...월가 CEO들 경고에
- WSJ: 월가, 대출 사기 잇따라 발생...사기 감시 강화
- JP모건: 글로벌 경제 현황

[미중 무역]

- Bloomberg: 중국, 미국에 '레드라인' 피하라고 촉구
- Bloomberg: 중국, 무역 불균형 우려 해소 위해 수입 촉진

[오일]

- Bloomberg: 러시아산 원유 공급량 감소...미국 제재로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우버, 3분기 매출 급등에도 주가 8% 하락
- WSJ: Kimberly-Clark, 4백억불에 타이레놀 제조사 인수

[미국 경제]

WSJ: Embattled Fed Governor Lisa Cook Voices Support for Recent Rate Cut

연준 이사 Lisa Cook, 최근 금리 인하 지지 표명

- 연준 이사 Lisa Cook이 지난주 금리 인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약 한 고용 시장 상황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위협이라는 것이다.
- Cook 이사는 파월 의장의 견해와 일치하며, 연준은 경제의 상충 관계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금리를 너무 많이 인하하면 인플레가 장기화될 것이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경제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Cook 이사는 현재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CNBC: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warn of a market correction:**'Things run and then they pull back'****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향후 1~2년 동안 주식 시장 하락 예상”**

-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향후 1~2년 동안 주식 시장이 10~20% 조정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후퇴가 위기의 신호라기보다, 장기적인 시장 순환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히려 시장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해석했다.
- 더불어 그들은 향후 수년간 아시아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일본의 기업 구조 개혁, 인도의 인프라 확대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이끌 것이며, 특히 중국의 AI, EV, 바이오테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CNBC 기사

Bloomberg: Stocks Halt Rally as Wall Street CEOs Sound Alarm: Markets Wrap**주가 상승세 멈춤...월가 CEO들 경고에**

- 월가 CEO들이 투자자들에게 주가 하락에 대비하라고 경고하자, 시장이 예상보다 앞서 나갔다는 우려 속에 주가가 하락했다.
- 월가 CEO들은 이러한 하락세를 오히려 건강한 흐름으로 지적했다. 투자 심리와 지표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집중 현상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 특히 S&P500 지수는 미국 기업들의 회복력, 인공지능에 대한 호황 전망,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힘입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 그러나 최근, 상승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식 시장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화요일에는 최대 1.2%까지 하락했다.
- 한편,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2bp 하락한 4.09%를 기록했고, 비트코인은 2.3% 하락했다. 반면에, 달러는 상승했다.

S&P 500 Gets Heat Check as Rally Fal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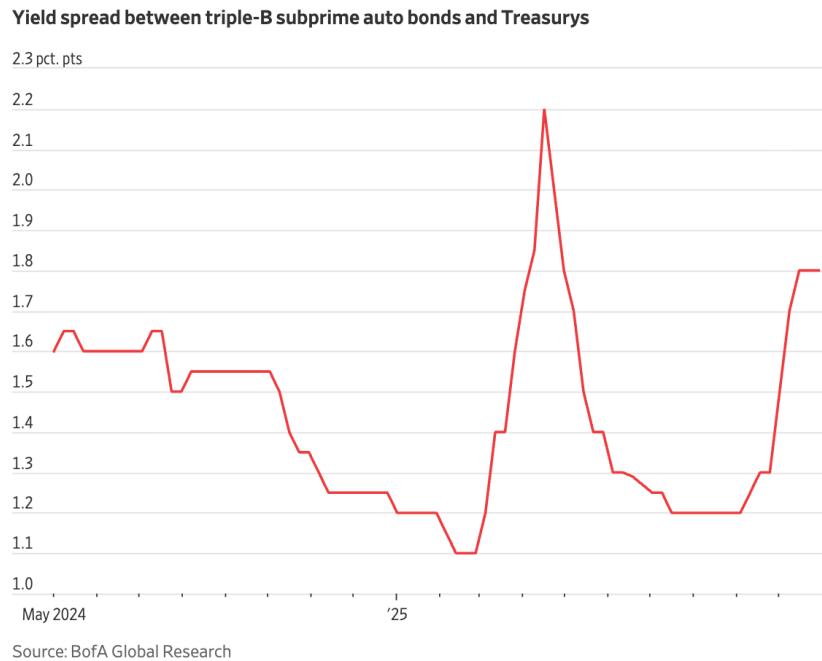
Source: Bloomberg

Bloomberg 기사

WSJ: Wall Street Intensifies Scrutiny of Fraud After Spate of Loan Losses

월가, 대출 사기 잇따라 발생...사기 감시 강화

- 기업 대출 사기 혐의가 제기되면서 월가에서는 실사를 강화하고 기업에 더 많은 재무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 또한, 월가에서는 은행, 투자 관리 및 회계 회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투자자 보호 방안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자동차 및 통신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들은 시장이나 경제에 광범위한 문제를 야기하진 않아왔으나, 지역 은행, JP모건 체이스, BlackRock 등 월가의 거대 금융기관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에 관해 투자자들은 사태가 일회성인지 시스템 구조 문제인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WSJ 기사

JP모건: 글로벌 경제 현황

1. 재정 부채 증가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장기적으로 큰 위험 요소이다.
2. 미·중 관계는 오래동안 완화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다.
3. 정책 입안자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인 자율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과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기술에 대한 낙관론이 강하며, AI는 위험한 경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분야로 보여진다.

5. 유럽은 부정적 분위기에 규제 피로에 젖어있으며, 그리고 '자기만족 (complacence)' 문제에 직면해 있다.
6. 중동은 걸프 국가들의 현대화로 평화적 정권교체이 전망되며 낙관적이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다.
7. 미국 금융시장의 강점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현재 라틴 아메리카 주식은 최근 더 좋은 성과를 냈다.
8. 아르헨티나의 중간선거 결과로 더 깊은 개혁이 가능하며 미국의 지속적인 정치·재정 지원이 가능할수 있다.
9.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는 탄탄하며, 앞으로의 선거 일정은 가까운 시일에 재정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10.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와의 경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 영향력을 빼앗길 수 있다.

JP모건 기사

[미중 무역]

Bloomberg: China Urges US to Avoid 'Red Lines' After Reaching Trade Truce 중국, 미국에 '레드라인' 피하라고 촉구

-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에 4가지 문제를 피하라고 촉구 했다. 이에는 대만, 민주주의와 인권, 중국의 정치 체제, 개발 권리가 포함된다.
- 미국 대사 Xie Feng은 관세, 산업, 기술에 대한 갈등은 결국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하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국과 중국은 그간 대만, 인권, 반도체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중국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최근 체결되었던 1년 간의 휴전이 파기될 수 있는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China Launches Import Promotions to Address Imbalance Concerns 중국, 무역 불균형 우려 해소 위해 수입 촉진

- 중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최근 급증한 대외무역 흑자와 이에 따른 주요 무역 상대국의 우려를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 중국 상무부 장관 Wang Wentao는 “Big Market for All: Export to China”라는 이름의 이 행사가 무역 파트너들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들은 5-6개국에 집중적으로 수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 또한,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접근하여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덧붙였다.

- 한편, 중국은 올해 사상 최대인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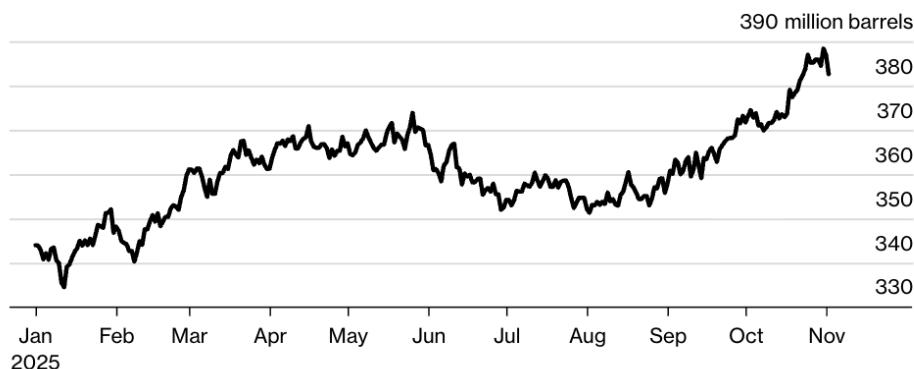
[오늘]

Bloomberg: Russia's Crude Deliveries Plunge as US Sanctions Begin to Bite 러시아산 원유 공급량 감소...미국 제재로

- 러시아의 해상 원유 수송량이 2024년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미국의 제재로 인해 주요 수입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꺼리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 11월 초 기준 최근 4주 평균 수출량은 일 358만 배럴로, 전월 대비 약 19만 배럴 줄었다.
- 미국은 러시아 최대 규모 에너지 기업 Rosneft와 Lukoil과의 거래를 금지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재고가 해상에 정체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원유를 선적하고 있으나, 중국, 인도, 터키의 정유업체들이 구매를 일시 중단하고 대체 공급원을 모색하고 있다.
- 이로 인해 해상에 있는 러시아 원유의 양이 3억 8,000만 배럴 이상으로 급증했다.

Russian Oil at Sea

The amount of Russian crude on tankers has soared since the end of August



Source: Vessel tracking data compiled by Bloomberg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Uber falls 8% despite third-quarter revenue beat 우버, 3분기 매출 급등에도 주가 8% 하락

- 우버는 3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8% 하락했다.
- 코로나 이후 반등을 제외하고 우버 역사상 가장 큰 여행량 증가를 기록하며 2023년 말 이후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한 134억 달러, 순이익은 3배 가까이 늘어난 66억 달러, 총 예약액은 21% 상승한 497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월간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1억 8,900만명을 기록했다.
- 우버 CEO는 혁신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여행 및 예약 증가를 견인했다며, 향후 AI를 활용한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 기사

WSJ: Kimberly-Clark Strikes \$40 Billion Deal for Tylenol Maker Kenvue Kimberly-Clark, 4백억불에 타이레놀 제조사 인수

- 하기스 기저귀 제조사 Kimberly-Clark가 약 400억 달러에 타이레놀 제조사 Kenvue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올해 발표된 인수 및 합병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번 합병으로 연간 매출 약 3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건강 및 웰니스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 이번 합병은 Kimberly-Clark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Kenvue의 건강 및 웰니스 제품은 마진이 높은 소비자 건강관리 시장에서 Kimberly-Clark에게 강력한 발판을 마련해줄 것이다.
- 그러나 트럼프가 타이레놀 성분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Kenvue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잠재적 위험요소로 꼽힌다. 해당 논란이 확산될 경우, 소송 비용 증가 및 평판 리스크가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WSJ 기사

KOCHAM | 460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